



환율 폭등 어디까지 ... 원·달러 환율이 국내외 증시 폭락의 영향으로 4일째 폭등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1,390원대로 상승한 가운데 8일 서울 외환은행 본점에서 외환 딜러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장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율 폭탄·증시 패닉 ... 금융시장 대혼란

제2換亂 가능성 없다지만 ... 불안 증폭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폭등 및 주가 급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시장 불안의 '불뚝'이 산업계와 가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지역 경제 회복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발 금융위기가 연일 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4거래일간 200원 이상 폭등하고 코스피지수는 2년2개월 만에 1,300선이 무너지는 등 시장이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일부 외환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선 11년전 외환위기 직전 상황을 보는 듯하다는 푸념도 흘러 나온다.

현재로서는 과거 환란과 같은 위기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불안 요인은 곳곳에 널려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의존적인 경제 구조로 인해 외부 충격에 극히 취약

기업 환차손·자금난 아우성, 가계 주가 폭락·고금리 울상

은행도 달러 확보 비상 ... 달러난 계속면 흑자 도산 우려도

한 데다 가계 및 기업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전남의 경우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지역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들은 '돈줄'이 막혀 아우성이고, 가계는 주식 폭락과 고금리 기조 등으로 인해 울상을 짓고 있다.

하남산단의 A업체 대표는 "올 들어 매출이 20% 가량 늘었지만 최근 환율 급등으로 인해 이익은 되려 감소할 전망"이라며 "원자재의 30%를 수입하는 입장에선 팔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금리 기조 속에 주가까지 폭락하면서 가계

의 한숨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광주·전남의 주식투자자들은 2조2천870억원의 주식을 거래했다. 하지만 이날 코스피지수가 1,300선마저 무너지자 거래 자체를 포기한 채 충격에 휩싸였다.

고금리도 서민 가계를 옥죄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시중은행들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7.16%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8월(6.38%)에 비해 0.7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1억원을 기준으로 연간 이자가 78만 원이나 늘어났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자산운용협회에 따

르면 8월 말 현재 국내 주식형펀드 계좌 수는 1천784만5천755개로, 지난 6월 말에 비해 32만4천416개나 줄었다.

은행들도 달러난에 대한 경제 약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화 수급의 문제로 달러난이 지속될 경우 은행으로부터 제때 자금을 수령받지 못한 기업들이 흑자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들의 건전성 약화로 이어질 뿐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충격을 주게 된다.

정부가 지난 6일 수출입은행을 통해 광주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에 50억 달러 규모의 외화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달러 기근 현상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높은 금리를 주고 하루짜리 초단기 달러 차입으로 버티고 있다.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비율은 정부의 지도비율(85%)보다는 높지만 지난 5월 말 104.4%에서 9월 말에는 100.5%까지 떨어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3麗' 통합 10년 ... 효과는?

공무원 ↓ 예산 ↑ '군살빼기' 성공 박람회 유치로 관광 도시 발돋움

전남 동부권 3개 시군이 합쳐져 탄생한 여수시가 올해로 통합 10년째를 맞았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과 맞물려 1998년 성사된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3여(麗)'의 통합 과정은 어땠으며 통합 여수시의 출범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여곡절 끝 통합=총 면적이 496km인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의 통합 논의는 1994년부터 시작했다. 생활권이 엇비슷한 인접 시·군을 통합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였다.

그러나 통합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했지만 여수시 주민들의 97%가 통합에 찬성한 반면 여천시와 여천군은 찬성률이 각각 31%, 34%에 불과해 통합이 무산됐다.

당시 여천시(7만4천명)와 여천군(6만8천명) 주민들은 여수시(18만6천명)와 통합할 경우 모든 것이 여수시에 흡수돼 여천시와 여천군의 존재가 사실상 소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에 통합 거부 쪽에 대부분 손을 들었다.

결국 여수시가 '통합시청'의 위치는 여천시 청사로 한다'고 여천시에 양보함으로써 4년 뒤인 1998년 4월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이 완료됐다.

◇통합 효과=통합 전 주력산업인 수산업의 위축으로 쇠퇴일로를 걷던 여수시는 통합 후 명실상부한 전남 동부권의 핵심 도시로 면모를 일신했다.

인구는 통합 당시 32만9천명에서 9월 말 현재 29만5천명으로 3만4천명(10.3%) 줄었지만, 예산은 통합 당시 3천900억원에서 올해 9천421억원으로 5천521억원(141.6%)이나 늘어났다.

공무원 수도 통합 당시 2천844명에서 현재 1천696명으로 1천148명(40.4%)이 줄어 '군살빼기'에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이 도시경쟁력을 확보한 여수시는 2010년 상하이(上海)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도전해, 한

차례 고배를 마시기는 했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했다.

'3여 통합'에 이어 2012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성공한 여수시는 남해안의 중심 레저·관광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2012년까지 전라선 복선화 사업과 KTX 운행,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 건설, 여수-고흥 연육·연도교 가설, 광양-목포 고속도로 건설,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여수 국가산단도 전체 생산액이 44조 원에 달해 지역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정서적 통합까지는 '혈로'= '3여'가 통합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공식사회와 시민사회에서는 옛적의 잔재가 일부 남아 있다.

여수시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는 인사 때만 되면 과거 10년 전 소속 시·군이 거론되고, 통합 도시 명칭이 여수시이지만 '여천'이란 지명이 여전히 통용될 정도여서 정서적 통합까지 100% 이뤄졌다고 말하기는 이른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kwangju.co.kr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2008년 총동창회 체육대회◆

◆ 일시: 2008. 10. 12(일) 09:30 ◆

◆ 장소: 모교 운동장 ◆

☎ 062-224-1461, 062-232-6897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유치부 임재근

광주·전남 환변동 보험 손실액 눈덩이

광주 77억·전남 38억 달해

올들어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 보험 가입 기업의 환수액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손실액도 지난 2년간 손실액의 1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출)이 8일 공개한 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환 변동 보험 환수액 금액이 올 8월에 4천548억원이던 것이 9월말 집계 현재 6천449억원으로 급증해 한 달 새 발생한 기업의 손실액이 1천901억원에 달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총 손실액은 7천171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환수금 손실발생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총 2천460억원으로 환수금 기업의 손실이 가장 컸고, 이어 경기 1천090억원, 경남 1천26억원 순이었다.

광주의 경우 2006년과 2007년 2년 동안 7억원에 불과하던 환변동 보험 가입 손실액이 올 들어서만 77억원이 발생, 지난 2년 동안 손실액보다 무려 10배나 늘어났다.

전남의 경우도 지난해까지 2년 동안 3억원에 불과하던 손실 규모가 올 들어 38억의 추가 손실이 발생, 지난 2년 동안 손실액 보다 무려 11.7배나 증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전남 상수도 누수율 전국서 두번째

25.8%...생선원가도 최고 수준

전남지역 상수도 누수율과 생선원가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8일 배포한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전국 47개 상수도사업장의 누수율은 평균 14.2%로, 이로 인한 낭비 금액은 5천767억원(사업장 평균 122억6천97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 상수도사업장은 연간(2006년) 1억7천191만톤을 급수하는 가운데 누수율이 25.8%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북도에 이어 두 번째

로 높았다. 또 전남도의 상수도 생선원가도 952원/㎥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다. 이에 따라 누수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422억1천500만원이 됐다.

광주시의 상수도 누수율은 8.7%, 생선원가는 564원/㎥로 양호한 편이었으며 누수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77억4천600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상수도 사업장 누수로 인한 손실이 연간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은 국외의 낭비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댐 건설과 상수도 생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00 / 062-722-0100

10255300-9999